

광주시 때아닌 간부 승진인사 ‘기대감’

박항 이사관 복지부 발탁 자리 발생 기술직간 경쟁에 비고시 여성 가세 이 시장 1주일 장고...보류 전망도

광주시가 산하기관장 인사 등과 맞물려 때아닌 간부직 승진·전보 인사 등을 예고하면서 공직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사에서 광주시 첫 여성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한 박항 전 실장이 최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발탁되고, 그 자리를 박남언 국장이 승진 배치되면서 3급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일단 박남언 실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3급 승진 후보로는 기술직렬이 우세한 여건을 선점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사에서 토목직 출신인 문범수 지방이사관 퇴임 등으로 공석이 된 2급과 3급 두 자리 등을 사실상 행정직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목직 4급인 김재식 도시계획과장이 승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건축직인 김종호 공원녹지과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시청 토목직들은 앞선 승진 인사에서 건축직인 정대경 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승진했고, 3급 이상 간부 중 토목직 국장은 단 한명 뿐인데 반해 건축직은 2명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특히 광주시 직렬간 인원에서 토목직은 247명으로, 건축직 91명의 3배에 육박한다는 점도 집중 부각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건축직 선두주자인 김종호 과장은 4급 승진일자가 2017년 7월로, 김재식 과장(4급 승진일 2018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빠르다는 점과 3급 이상부터는 직렬구분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들 2명 모두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하게 질타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위원회 미숙운영 등과 관련해 업무상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이다. 이 시장이 3급 인사를 놓고 일주일 넘게 장고(長考)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로, 당분간 인사 자체를 보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기술직 중에선 이들 외에도 환경직인 송용수 과장(2017년 7월)과 공업직인 오동교(2018년 1월) 과장 등이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내 신망도 두텁다.

기술직의 빈틈을 노리는 다른 측은 비고시 여성 행정직으로, 2017년 7월 4급 승진자인 김순옥, 이명순 과장이다.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선 현재 9급부터 공직을 시작한 일반 행정직(비고시) 여성국장이 없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그동안 3급 이상 여성간부는 5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현재 3명 뿐이라는 점도 이들의 승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지난해말 공모연수에 들어간 강영숙 국장을 마지막으로 9급 행정직 출신 여성국장이 없다 보니, 비고시 여성 공무원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시 여성공무원들은 7월 기준 전체 2406명 중 896명으로 37%에 이르지만, 3급 이상

은 전체 22명 중 3명으로 13%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수 십년간 공직에 헌신해온 비고시 행정직 남성 4급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화 인사정책관 등이 다크호스로 꼽힌다.

이번 인사와 맞물려 조만간 있을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2급과 3급 승진요인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서다. 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과학기술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영어방송 등 5개 기관장이 10~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산하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시공사 사장자리를 놓고 시청 안팎에선 2급인 정민근 시의회사무처장 지원설 등 다양한 하마평이 나온다. 2023년 6월 공모연수 대상인 정 처장이 도시공사로 옮긴다면, 오는 10월에도 또 한번 2급과 3급 승진 자리 등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공모연수에 들어가는 1963년생인 김애리, 정대경(이상 6월), 이정식, 이달주, 송상진(이상 12월) 등 3급 간부 중 일부라도 시 산하 기관장으로 이동할 경우 딱딱한 간부급 인사는 물론 하위직 일부 인사도 어느 정도 승용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한 직원은 “역대 민선 중 산하기관에 공직자 출신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처음일 것”이라며 “시 분청과 소통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산하기관 내 적정 수준 공직자 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치과 신경치료 등 부담 덜 것”

‘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

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문케어’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문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정부 “추가 방역조치 논의...중증·사망자 위주 방역 지침은 검토안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 선 그어

18~49세 이틀간 예약 60%대

정부가 현재 수준의 방역 조치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방역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정부는 신규 확진자 대신 중증·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

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해 “현 추세를 분석하면서 필요성 여부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며 “여러 전문가와 함께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대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지표를 중심으로 새 방역 지침을 검토하는 전면적인 수준의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확진자 대신 위중증·사망자 수로 방역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인데 현재 이 정도 수위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점들이 올라가기까지 확진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사망자 수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방역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추가 조치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8~49세 국민 대상 10부제 예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틀간 예약률은 60%대로, 전체 목표치 7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한다

올해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뤄진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친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배우 조진웅 씨가 포함됐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한국에 도착하며, 16일과 17일 이틀간의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18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해 봉환은 16~17일 카심-조마르트 토크에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민 방한에 맞춰 성사됐다. 홍범도 장군은 현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민 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했고,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협조할 것을 약속해 양국이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홍범도 장군은 101년 전인 1920년 최진동 장군과 함께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무장독립운동사에 남을 승리를 거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0월 21일 첫 발사

내년 5월 19일 2차 발사 예정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첫 발사일인 10월 21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제출한 누리호 발사 계획서 및 발사 허가 신청서를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 3월 발사 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발사허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세부 내용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심사한 뒤 확정했다.

1차 발사일인 10월 21일 이후 일주일 간(10월 22일~10월 28일)은 발사 연기 등을 대비한 발사 예비 기간으로 정했다. 1차 발사에서는 1.5t 데미(시험) 위성을 탑재할 예정이다.

2차 발사 예정일은 내년 5월 19일로, 이 때는

0.2t 성능 검증 위성과 1.3t 데미 위성을 싣는다.

최종 발사일은 이달 말 발사체의 마지막 점검 단계인 WDR(Wet Dress Rehearsal) 결과를 관찰한 후 9월 말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WDR은 영하 183℃의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으며,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했다. 현재 비행 모델 조립 단계도 최종 완료 국면에 들어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급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	---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나주 요양병원

「급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상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도희

분할 합병 공고
 주식회사 삼성건설(이하 '갑'이라 한다) 와 서해건설 주식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시기 2021년 08월 11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 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이 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 의무를 '을'이 포괄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 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시기 2021년 8월 13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삼성건설**
 소 개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7, 701호 (차평동, 중흥스카이31오피스텔)
 사내이사 : 박서연
 "을" 상 호 : **서해건설 주식회사**
 소 개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325
 대표이사 : 조병식

산행안내

8월22일(일)
 ▲광주서산악회 8월22일(일) 경북 충북, 괴산, 문경&백두대간 대야

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영주체육관 06:00, 동야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創刊

광고문의 : (062)227-9600
 신문구독 : (062)220-0551
 여행구독 : (062)220-0550